

‘제주어 문학’의 가능성과 한계*

— 김광협의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을 중심으로 —

이성준**

《차 례》

1. 들어가며
2. 표현상의 특징
 - 2-1. 과거지향적 성격
 - 2-2. 구술성과 다중서술
3. 선구자적 인식과 시대 상황, 그리고 한계
 - 3-1. 부적절한 제주어 표현
 - 3-2. 제주적 상황에 맞지 않은 진술
4. 의의 및 영향관계
5. 나가며

〈요약문〉

문학작품에 제주방언을 활용한 예는 적지 않지만 본격적인 활용은 김광협의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텍스트의 ‘최초성’만을 부각시키다보니 정작 텍스트에 대한 문학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한

* 이 논문은 ‘2012년도 배달말학회 전국학술대회’(2012년 10월 20일)에서 발표했던 논문(「제주문학의 제주어 활용 양상 고찰」)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다듬어주신 주신 최미선(진주보건대)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것 같다. 이런 기존 경향을 벗어나, 필자는 텍스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텍스트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텍스트는 1980년대에 발간됐음에도 1960년대 이전 사회를 제주적 원형을 갖추고 있던 때라고 상정하여, 다양한 화자를 동원하여 이 시기 제주의 풍습·제주인의 삶과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서민과 민중 시각에서 제주를 형상화하기 위해 민요를 변용하고 있고, 다중서술방식을 채택하고 있음도 특징적이다. 그러나 ‘최초’란 선구자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제주방언 사용으로 제주방언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제주적 상황에 맞지 않은 진술로 제주적 상황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고향인 제주를 떠나 서울살이를 오래 한 시인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는 선행텍스트로서 제주어로 된 많은 시집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방언으로 창작된 시집들 대부분이 1960년대 이전 시기를 ‘제주적인 것’이 유지되는 사회로 서술하는 것이나, 현재적 관점이 아닌 ‘과거적 제주’의 형상화, 제주의 토착적 정서를 바탕으로 제주민의 의식을 그린다는 점 등은 이 텍스트가 후행텍스트에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김광협,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제주문학, 제주방언 시집, 제주방언 표기, 제주의 원형, 제주의 풍습과 생활, 텍스트의 의의와 한계

1. 들어가며

제주문학을 돌아보면 제주방언을 활용하여 작품을 쓴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등단한 지 30년이 넘는 작가의 작품(시와 소설)을 대상으로 제주방언을 활용한 예만 정리해도 한 권의 책으로 묶일 정도다.¹⁾ 특히 1980

년대 이후 제주방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뿐만 아니라 소설, 수필 등에서 제주방언을 활용하는 예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²⁾

제주방언은 아직까지도 제주사람-제주 출신이거나 제주에 오래 거주하여 제주방언을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겐 외국어만큼이나 낯설고 어려운 언어다. 그러다보니 문학작품에 제주방언을 활용하는 데는 그만큼 제약이 따른다. 제주사람이 아니거나 제주방언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독자가 해득할 수 있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문(소설이나 수필)의 경우는, 제주방언 뒤에 괄호를 삽입하여 표준어로 풀어주는 고육책을 쓰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줄글로 서술하는 산문과는 달리, 연과 행으로 구분하는 운문의 경우는 제주방언의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독자들은 시의 장르 문법을 알기에 제주방언 표기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거나 낯설음을 느끼기보다 차분히 되새기며 읽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장르적 속성으로 인해, 다른 장르와는 달리 시에서는 제주방언을 활용하는 경향이 늘기 시작했고, 1984년에는 김광협에 의해 제주방언으로 쓰인 시집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³⁾이 발간되기에 이른다. 그 후 제주방언으로 쓰인 시집이 일곱 권이나 발간될 정도로 시에서의 제주방언 활용이 활발해진다.⁴⁾ 이외에도 문충성⁵⁾, 김수열⁶⁾, 김경훈⁷⁾, 이성준⁸⁾ 등에 의해 계

1) 강영봉·김동윤·김순자(2010), 『문학 속의 제주 방언』, 글누림.

2)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동윤(2008),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 제주.를 참조하기 바람.

3) 김광협(1984),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태광출판사.

이 시집은 1982~83년에 『제주신문』에 연재됐던 작품에 몇 편을 첨가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이다. 처음 발간될 때는 ‘제주 민요 시집’이란 수식어를 달고 있었다. 그리고 1993년에 ‘제주도 사투리 시집’이란 명칭으로 백록에서 다시 발간된다. 그러나 텍스트가 바뀐 것은 아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송상일의 작품 해설(「살아진다’의 부정과 긍정」)도 1984년판 그대로다. 출판사만 바꾸었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는 초판인 태광출판사에서 출간한 1984년판을 텍스트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4) 김용해(1992), 『흔저 읍서계』, 양지원; 김중두(2000), 『사는 게 뭇산디』, 영주문학사; 제주; 고정국(2004), 『지만 울단 장쿨래기』, 각 : 제주; 고훈식(2006), 『으보록

속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얼마간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경향은 ‘멸종 위기에 놓인 제주방언’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면서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평가할 만하

스보록』, 제주콤 : 제주.; 고희식(2006), 『어글락 다글락』, 제주콤 : 제주.; 양전형(2008), 『허천바레당 푸더진다』, 다층 : 제주.; 이성준(2012), 『설문대할마님, 어떻 읍테가?』, 각 : 제주. 등이 있다.

5) 문충성은 「漢拏山에 흘린 사람들」, 「제주조릿대」, 「폭설경보」, 「竹林七賢을 위한 14行 詩」 등에서 제주방언을 활용했다. 그 외에도 「처음부터이세상은개판이었주」, 「영등제」 등에서 제주방언을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표준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제주방언을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충성의 경우는, 「일곱 아들은 복두칠성이 되고」, 「설문대할망」, 『자청비』 등에서 보듯 제주적 소재를 많이 활용하긴 했으나 거의 표준어로 기술했다.

6) 김수열은 첫 시집 『어디에 선들 어떠랴』(파피루스 : 제주, 1997.)에서 「제주도 민 현장」, 「백조일손」, 「마래 ㄹ는 소리」, 「임중」, 「어머니」, 「돌추림」, 「숨비소리」를 제주방언으로 발표한다. 그 이후, 「이승 저승」, 「어머니의 전화」, 「깨밭」, 「풀빛」, 「대맹일 써사 헌다」, 「귀양풀이」 등에서도 제주방언을 활용하여 제주, 제주민의 삶과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7) 김경훈은 데뷔작이라 할 수 있는 「분부사림」에서부터 제주방언을 구사하기 시작한다. 이후, 「소(牛) 혹은 소까이(疏開)」, 「단장곡(斷腸曲)」, 「나에게 돌을 던집서」 등에 제주방언을 활용했다. 그리고 시집 『눈물 밤 한숨 잉걸』(심지, 2008.)에서는 제주 4·3을 다루면서 제주방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고(告)」, 「와산당굿, 이정자 심방의 산받음 중에서」, 「오사가 한인시장의 한청옥 할머니」, 「호적 하나만 발루 외출서」, 「제주사투리가 나를 살리다」, 「구삼승냄」, 「팽돌이」, 「물문서 허맹이 문서」, 「양태 뭇는 소리」, 「살암시문 살아진다」, 「안 죽어서」, 「그해 겨울의 가족사」 등에서 제주방언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8) 이성준은 「용두안절설」, 「지드림」, 「지전(紙錢)풀이」, 「하간 거 몬 브러불민」 등을 통해 제주방언을 실험하더니 설문대할망 설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창작본풀이인 『설문대할마님, 어떻 읍테가?』(각 : 제주, 2012.)를 발간한다. 단편적이고 돌발적인 설문대할망 설화를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로 서술했다는 점에서, 제주의 구전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한편 문화콘텐츠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최초의 창작본풀이란 점에서, 폭넓은 제주방언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9) 2010년 12월 유네스코 ‘소멸 위기 언어 레드북 홈페이지’에 제주어가 등재되는데, 제주어는 유네스코 기준의 ‘소멸 위기 4단계인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규정되어 있다.

다. 그 단초를 제공한 시집이 바로 김광협이 『돌할오방 어디 감수광』이기에 이 텍스트에 대한 조명이 다른 어떤 텍스트들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이 시집은 시 전편이 제주방언으로 쓰여졌다는 독특성으로 인해 관심을 받아왔다.¹⁰⁾ 그러나 그 관심이란 것이 서평 정도의 가벼운 글이거나 제주방언 활용 양상을 살피면서 ‘최초’란 의미를 부여하여 언급하는 정도였지 적극적인 비평이나 학술적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제주방언으로만 쓰여진 시집들이 다수 출판되고 있고, 이 텍스트의 서술기법이나 내용이 후행텍스트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돌할오방 어디 감수광』의 내용 및 형식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제주문학의 제주방언 활용 양상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필자는 먼저 텍스트에 나타나는 특성을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후행텍스트들에게 미친 영향 관계도 얼마간 조명되리라 생각한다. 그런 다음 제주방언 활용의 한계와 의의를 살펴 제주방언을 활용한 제주문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려 한다. 물론, 제주방언 시집 전반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겠지만 총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표현상의 특징

제주 출신 문인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고향 언어인 지역어를 문학텍스트에 활용하곤 한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강 세 측면에서 접

10) 대표적인 논의로 송상일(1991), 「제주문학의 향토성과 보편성—시의 방언 사용을 중심으로」, 『제주문학』 20집, 제주문인협회: 제주, 146~151쪽.; 김영화(2000), 「제주어(濟州語)와 문학」,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제주, 39~48쪽. 김동윤(2008), 앞의 책, 66~68쪽. 등이 있다.

근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텍스트의 배경을 자신이 나고 자라서 잘 알고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하려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 특히 작가(예술가)란 그런 욕구를 남들보다 강하게 표출하는 존재이고 보니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¹¹⁾ 다음으로, 익숙한 모어(母語)–모국어가 아닌 말 그대로 어머니의 입을 통해 배운 어머니의 언어–를 구사하고자 하는 욕구도 한 축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모어야말로 평생 잊을 수 없는,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몸에 밴 언어라 할 수 있다. 그 언어는 고향 이미지와 함께 늘 붙어있는 ‘제2의 DNA’이기에 작가는 고향의 언어로 자기 이야기를 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어가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정서와 상상력을 표현하기 위해 지역어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준어나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고유 의 ‘감칠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작가는 ‘감칠 맛’을 위해 ‘자기 언어’를 고집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둘째 항과 연결시킬 수 있지만, 언어가 사고와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면 다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기에 다른 항목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다. 이외에도 현장성을 부여하고 생동감 넘치는 서술을 위해서 지역어를 활용하기도 한다. 본고의 텍스트인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어쩌면 이 텍스트는 이 모든 욕구를 포함하는 있는 것 같다.

제주방언으로 표기된 최초의 시집인 김광협 의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은 처음 출간 당시 ‘제주 민요 시집’이란 수식어를 붙였을 만큼 민요와 맥이 닿

11) 이부영(1998), 『정신분석학』, 일조각, 302쪽. 이부영은 용의 의견을 수용하여 작가(예술가)의 ‘예술혼’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부영이 직접적으로 작가가 자신의 고향을 드러내려는 욕구를 가졌다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작가(예술가)는 어느 누구보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표현욕이 강할뿐더러, 현실적인 이익 관계까지 외면하면서 ‘예술혼’을 발휘하려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에는 고향 또는 고향의 언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착안하여 용과 이부영의 논지를 근거로 삼았다.

아있다. 형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민요의 속성이 녹아있다. 먼저 형식적인 면에서 4·4조의 2음보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시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민요조인 3음보의 율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면보다는 내용적인 면에서 민요와의 친밀성이 드러난다. 텍스트에서 그리는 1960년대 이전의 제주사회는 농경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기계화되지 않은 농경문화는 ‘노동의 일상화’가 유지되던 사회고, 그런 사회였으므로 노동요가 자연스럽게 가창되었다. 제주 민요의 대부분이 노동요인 이유도 농업경제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¹²⁾ 그런 시대적 특성이 텍스트에 민요적 속성으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서민들에 의해서만 불리는 민요는 철저히 서민적이다. 민요를 부르고 즐기는 일은 서민들만의 일이어서 귀족은 상관하지 않는다. 귀족들은 설화·속담·수수께끼·판소리 등에는 참여하지마는, 민요를 부르는 데는 외면했다.¹³⁾ 이 텍스트가 철저히 서민적·민중적 삶과 정서를 표현한 것 또한 민요의 이런 속성과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제주민 자체가 극소수를 제외하면 서민이고 민중이었기 때문에 텍스트에 표현된 삶이나 정서·감정 자체가 민요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텍스트에 드러난 화자의 개인적·독백적 자기 표출 또한 민요의 자족성(自足性)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민요를 부르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전문가가 아닌 누구나 부를 수 있고, 독백이 흔하므로 대체로 서정적인 속성¹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요적 상황은 구술성에서도 드러난다. 구전문학인 민요는 구술성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요소들은 김광협 시의 특징을 이루고 있기에 무엇보다 이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12) 김영돈(2002), 『제주도 민요연구·하』, 민속원, 15·20~21쪽.

13) 위의 책, 15쪽.

14) 위의 책, 17~19쪽.

2-1. 과거지향적 성격

텍스트의 거의 전편은 과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텍스트가 출간되었던 1980년대 상황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 시기인 1960년대 이전 상황이고 이야기다. 시인의 유년 시절의 경험이거나, 유년 시절에 들었거나 상상했음직한 대과거적 상황과 사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주의 변화상이나 당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기보다 의도적으로 '과거적 제주'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제주를 떠나 살면서 고향 제주를 그리워한 시인의 삶과도 무관치 않다. 김광협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줄곧 서울살이를 했기 때문이다. '산 사람은 나이를 먹지만 죽은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고향을 떠나 있었기에 고향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더 고향을 그리워했을 것이고, 그가 그리워한 고향은 어린 시절의 고향 그대로일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시인의 뇌리에는 유년시절과 청소년시절의 경험과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내용을 제주방언으로 옮긴 것이 바로 김광협의 텍스트가 아닌가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김영화의 지적처럼 이 텍스트는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감각이 둔감하다”¹⁵⁾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의 의도와 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볼 수도 있겠다. 시집이 발간된 시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지적은 타당하다. 그런데 텍스트의 내용은 1980년대 상황이라기보다 시인의 어린 시절의 체험(상상적 체험까지 포함한)이거나 이야기, 어린 시절에 들었던 과거 제주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서술 시점이 당대가 아닌 과거에 체험했던, 체험적 시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제주 고유의 모습은 ‘현재적인 제주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적 제주의 모습’ 속에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적인 것’, ‘제주의 원형’은 근대문명과 서구 문물이 들어오기 이전의 것이며, 육지부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육지부의 그것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라고 전제하고 있는

15) 김영화(2000), 앞의 책, 41쪽.

듯하다. 그 시기를 시인의 유년시절이나 그 이전의 시기로 규정하고, 그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근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은 남도의 옛 모습을 남도의 원형으로 전제하여, 근대 이전의 사고를 통해 근대적 문물과 인간의 제도에 대한 거부감 표출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청준 소설을 연상시킨다.¹⁶⁾ 따라서 현재적 시간이 아니라 1960년대 이전의 과거적 시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당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필자의 추정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① 우리어멍 우리아방 / 살아생전 고생고생
대천바당 한가운데 / 제주땅엘 녀영왕근
븨름코지 빌레왓딜 / 정을들연 살아왓찌
이고단이 살디라고 / 막슴정현 살아왓찌
헉구헌날 혼숨이국 / 헉구헌날 고생이국
븨름코지 빌레왓딜 / 빼빠지게 좇아그네
피도갈곡 조도갈앙 / 그영저영 살아오난
눈물납찌 눈물납찌 / 눈물납찌 눈물납찌

— 「븨름코지 빌레왓딜」 일부(12쪽)

올어머니 올아버지 / 살아생전 고생고생 / 넓은바다 한가운데 / 제주땅엘 건너와서 / 바람받이 자갈밭엘 / 정을 들여 살아오네 / 이 고장이 살데라고 / 마음 정해 살아오네 / 하고한날 한숨에다 / 하고한날 고생이며 / 바람받이 자갈밭을 / 빼빠지게 쫓아서는 / 피도갈고 조도갈아 / 그렇저렁 살아오네 / 눈물 난다 눈물 난다 / 눈물 난다 눈물 난다. — 「바람받이 자갈밭에」 일부¹⁷⁾

16) 이성준(2011), 「이청준 소설의 시·공간적 특징과 알레고리—연작소설 『서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85~287쪽.

17) 제주방언에 이어진 네모 속의 표준어 해석은 시인이 직접 한 것이다.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다소 어색하거나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만, 시인의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대로 옮겼다.

② 동지선들 진진밤에 / 할머니는 구들에 아장
밤을 새왕 미녕을 좇곡 / 할오바님은 삼방에 아장
밤을 새왕 명석을 전다 / 부섭에 불은 와랑와랑
굴목에 불도 와랑와랑 흐주마는 / 밤을 새왕 미녕을 좇곡
밤을 새왕 명석을 절당 보민 / 등뎡이도 실러오곡
—「밤을 새왕 미녕을 좇곡」 일부(124쪽)

동지 선달 긴진 밤에 / 할머니는 구들에 앉아 / 밤을 새워 무명을 갖고 / 할아버님은 대청에 앉아 / 밤을 새워 명석을 쥘다 / 화로불은 후끈후끈 / 온돌불도 후끈후끈하지만 / 밤을 새워 무명을 갖고 / 밤을 새워 명석을 쥘다 보면 / 등도 시러 오고 —「밤을 새워 무명을 갖고」 일부

발화시점은 현재지만, 그 내용은 ‘과거적 제주’를 이야기하고 있다. ①에서는 “우리어명 우리아방”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할망 우리 할오방’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더 나아가 ‘우리 할망에 할망 우리 할오방에 할오방’ 또는 ‘섬에 들어온 우리 할망 우리 할오방’이라고 해도 무방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즉, ①의 ‘어명’과 ‘아방’은 부모를 지칭한다기보다, 조부모나 제주에 뿌리를 내린 조상을 지칭한다. 따라서 그 이야기는 과거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속성은 텍스트에 일관되게 드러나는 표현 양식으로, 현재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과거사를 묘사·진술하고 있음으로도 알 수 있다. 부러 현재적 사실이나 현재적 상황보다는 ‘제주의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②의 경우도 80년대 상황이 아니다. “미녕을 좇곡(무명을 갖고)”, “명석을 저는(명석을 쥘는)” 행위는 70년대에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나일론과 합성섬유가 의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혼방과 면류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무명을 생산하지 않았고 명석을 대신하여 화학제품인 ‘가빠¹⁸⁾가 일상화되면서 명석을

18) 원래 가빠(capa)는 포르투갈어로,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막기 위하여 만든 두꺼운 천’을 말한다. 그러나 천 대신 비닐제품이 일상화되면서 비닐제품에 대해서도 이 명칭을 썼었다. 보통 비바람을 막거나 곡식이나 농작물을 덮어 말릴 때 주로 사용했었다.

저는 일도 이미 옛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80년대는 제주에도 이미 보일러가 일반화되면서 “굴묵(재래식 온돌)”도 사라지고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②의 진술도 80년대에서 보자면 과거적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텍스트에서 ‘과거적 제주’를 표현한 것은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현재적 관점의 제주를 이야기하기보다 과거적 관점의 제주, 과거 제주민의 삶을 의도적으로 그려내는 한편, 그 ‘과거적 제주의 것’을 통해 ‘제주적인 것’을 부각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김영화의 논지는 텍스트 발간을 기준으로 한 평가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내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논지도 가능해진다. 문학적 서술의 대상은 반드시 ‘역사적 현실’이 아닌 ‘과거적 사실’이나 과거를 통해 현실을 비춰보려는 시도가 빈번하다. 역사소설이라는 장르를 보면 현재적인 관점에서 과거를 소환하여 현재를 조명하거나, 현재적 문제를 과거 사실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⁹⁾ 그러므로 이 텍스트의 시들은 과거 제주의 삶과 풍습을 다룬 ‘역사적 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영화가 지적하고 있는 ‘드사리’, ‘모름범벅’, ‘감저범벅’, ‘산디썰’ 등의 단어는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아울러 ‘나룩썰’(66쪽), ‘미녕웃’(116쪽) 등도 같은 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2-2. 구술성과 다중서술

표준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어는 구술성이 강하다. 통일된, 강제 규정된 표준어 이외의 언어가 문자화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제주방언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제주방언은 제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읽는 것마저 쉽지

19)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공임순(2000).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책세상.을 참조하기 바라고, 개별적인 논의는 헤이든 화이트, 천형균 역(2011), 『메타역사 I·II』, 지식음판드는지식.; 류 샤표,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역(2001), 『역사에서 허구로』, 길.을 참조하기 바람.

않다. “제주도의 그것은 육지 독자들에게는 마치 산크리스트어로 지껄이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²⁰⁾ 심지어 제주방언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주 사람의 경우에도 문자로 표기한 제주방언에 대해서는 낯설어하고, 더듬거리고, 헛갈려한다. 표준어로 쓰여진 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고, 제주방언의 문자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어는 구술적인 언어지 문자적 언어가 아님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월터 J. 옹은, 문화는 여러 감각들을 이용하고 개념적 장치를 여러 감각과 연관시키는 면에서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유태인은 청각을 중시하는 반면 고대 그리스인은 시각을 중시했고, 한국어는 다른 감각보다 미각을 중시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언어는 본질적으로 청각적 성격(구술성)이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²¹⁾

대체로 문자의 창안 이전에는 인간은 그 이후보다 구두(口頭)·청각적이다. 그의 말이 모두 발언되고 청취되는 말이요, 표면에 씌어진 시각적 부호가 아니라 는 점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그의 반응 전체가 인쇄적(印刷的) 인간의 것과 달리 구성된다는 것이다. …(중략)… 글과 알파벳이 창시한 두드러진 시각주의는 서구(西歐)에서 중세(中世)를 거쳐 점점 활용되다가 알파벳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15세기와 그 이후 갑자기 더 강화된다.²²⁾

구술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어는 문자로 인쇄된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문자화된 지역어는 낯설어 보일 수 있다. 청각에 익숙한 언어가 시각화되었기 때문이다. 전화나 라디오로 목소리만 들었던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느끼는 낯섦과 당혹감을 생각해 할 만큼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다. 김광협은, 그런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귀에 익숙한 민요 리듬을

20) 송상일(1993), 「살아진단의 부정과 긍정 : 김광협의 『돌할오방 어디 감수광』의 작품 해설」, 김광협, 『돌할오방 어디 감수광』, 백록, 184쪽.

21) 월터 J. 옹, 이영걸 역(1985), 『언어의 현존』, 탐구당, 13~17쪽.

22) 위의 책, 17쪽.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각 언어의 시각화로 야기되는 거부반응을 상쇄 내지는 완화시키기 위해 민요 리듬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인은 구술언어와 문자언어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고, 전달에 용이한 진술기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주방언으로 시를 쓸 때 중요롭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술기법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구술 언어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어는, 표준어로는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언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장성을 강조하는 담화표지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①의 “-(이)곡”, ②의 “-곡”은 표준어로 ‘-고’란 연결어미다. 시인의 해석에도 드러나듯이 “한숨에다”, “고생이며”, “жат고”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제주방언의 발화표지라 할 수 있다. 구술언어인 제주방언은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받침 없는 어미보다 받침 있는 어미를 선호한다. ②의 “아장”도 “앉아서”의 제주방언 표현인데, 여기서도 ‘-양’이란 형태가 첨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구술 언어적 속성을 강화하는 표지이자 담화표지임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어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사람들에 의해 사용될 때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지역어가 구술성을 띠고 있고 현장성을 중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김광협이 텍스트는 전체적으로 각각 다른 화자가 등장하여 진술하는 구어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양상은 각기 다르다.

③ 쇠막사리 부렁인 / 출 도렌 들락귀곡
돌통윗 도새긴 / 젓 도렌 보채어 대곡
밭거리 씨어명은 / 무사 저영 준다닌고
산지향에 하니브름 / 모질텐 흥주마는
씨어명 준다니만인 / 흙치흙치 못홀 껴여
쇠막사리 부렁인 / 출 도렌 들락귀곡
돌통윗 도새긴 / 건 도렌 보채어 대곡
씨어명 준다닌 / 무사 저영도 함싱고

외양간의 송아지는 / 꼴 달라고 바둥대고 / 우리 속 돼지는 / 먹이 달라고
 보채어 대고 / 바깥채 시어머니 / 왜 저리 잔소리랴 / 산지향에 하늬바람 /
 모질다고 하지마는 / 시어머니 잔소리만큼은 / 모질지 못할 거야 / 외양간의
 송아지는 / 꼴 달라고 바둥대고 / 우리 속 돼지는 / 먹이 달라고 보채어 대고
 / 시어머니 잔소리는 / 왜 저리 많을까 - 「외양간 송아지는」 전문

- 「쇠막사리 부랭이」 전문(14쪽)

④ 출각출각 ㄱ새소리 / 옛장시가 넘어가곡
 도비장시 넘어감찌 / 이레드락 저레드락
 아이덜만 지뻐점찌

- 「출각출각 ㄱ새 소리」 일부(26쪽)

찰각찰각 가위소리 / 옛장수가 지나간다 / 도부장수 지나간다 / 이리뛰고 저리
 뛰고 / 아이들만 기쁘구나 - 「찰각찰각 가위 소리」 일부

⑤ 공출은 무사 경 하영 내렌만 햅염사신디
 맨장 어른 너미 햅염수다 / 군수 어른 살려 줍써
 햅다 햅다 부탁이우다 / 이 공출을 조정 내게 햅여 줍써
 먹영 살게만이라도 햅여 줍써

- 「보리 공출 조 공출」 일부(28쪽)

공출은 왜 그리 많이 내라고만 하는지요 / 면장 어른 너무 하십니다 / 군수
 어른 살려 주사와요 /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 이 공출을 적게 내게 하사와요
 / 먹고 살게만이라도 해 주사와요 - 「보리 공출 조 공출」 일부

예문에서 보듯이 화자가 각각 다르고 진술 방식도 다름을 알 수 있다.

③의 화자는 며느리다. 시어머니가 없는 곳에서 시어머니 흉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독백이거나 청자가 있다 해도 화자와 뜻을 같이 하거나 화자의

인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혼자 또는 둘이서 멧돌을 돌리며 부르는 멧돌 · 방아노래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④의 화자는 누구인지 분명치 않다. 성별이나 나이 등을 짐작하기가 힘들다. 다만 나이든 어른 정도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옛장수의 출현에 아이들만 기뻐하는 모습을 어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로, 청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화임이 드러난다. 청자가 있다면 마지막 행이 “아이덜만 지뻐(지꺼)점싱게”란 보고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비교적 객관적인 화자가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의 이야기를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보다는 화자의 마음속에 담긴 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정시의 일반적인 양식을 따른 것이다. 구술성에 의존하면서도 청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문자성에 근접해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민요의 속성이 대체로 화자를 고려하지 않고 혼자 하는 독백이 많다는 속성²³⁾과 연결시켜 보면 이 또한 민요적 속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집을 처음 발간할 때 ‘민요시집’이란 용어를 썼는지도 모른다. 개인적인 서정을 노래한 시집이 아니라 민중들의 삶을 노래한 민요의 속성이 강한 시집이란 생각에서. 한편, ⑤의 경우는 화자와 청자가 직접 노출되어 있다. 화자는 공출에 못 견딘 농민(제주민)이고, 청자는 “군수 어룬”과 “멘장 어룬”이다. 군수와 면장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④와 같은 경우는 몇 편 되지 않고, 청자를 고려한 대화적인 발화가 주를 이룬다는 것은 그만큼 구술성에 충실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문자언어에 비해 구술언어는 청자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발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청자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청자와의 동질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

23) 김영돈(2002), 앞의 책, 17쪽. 김영돈은 이를 자족성(自足性)이라 부르고 있고, 화자의 독백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로 서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를 지닌다. 문학텍스트는 작가(생산자)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수용자(소비자)의 입장이 중시되고, 수용자의 입장에 의해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렇듯 간접화법보다 직접화법을 중시하고, 간접전달이 아닌 직접전달이라는 점에서 구술문학적 속성을 강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이런 구술성은 다중화자와 다중서술기법을 활용하면서 그 빛을 더한다. 다양한 제주민 화자를 동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제주민의 삶과 의식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화자는 제주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초동급부다. 바람 많고 돌 많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역사적 환난을 고스란히 감내하면서도 “살암시믄 살아진다”고 자위하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을 영위하는 제주사람들이다. 그러나 화자는 이들에 머무르지 않는다. 결코 평범하다 할 수 없는 ‘쇠테우리’(「쇠테우리 요 내 신세」), ‘역사적 환난에 부모와 오빠까지 잃은 여자’(「어명 아방 죽어그네」), ‘징병에 끌려가는 젊은이’(「죽영 온 놈 살앙 온 놈」),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는 사내’(「부디 부디 성공ᄃᆞ영」), ‘드사리 사는 처녀’(「드사리 삼년 살단 보난」) 등의 화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제주민의 삶과 의식을 조명하고 있다. 심지어는 ‘제주로 귀양 온 사람’(「말이 늦쓰랑 안 되키여」)까지 동원하여 유배 온 사람들의 애환과 그 이유를 따지고 있다. 이런 기법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철저히 서민적이고, 자족적이고, 서정적인 민요의 속성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런 기법은 로드무비나 움니버스 영화를 연상시킨다. 다양한 등장인물과 소재들을 조합하여 단일한 주제를 표출하는 기법이 다중서술기법과 연결되어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제주민의 삶과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도 곳곳하게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끈기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선구자적 인식과 시대 상황, 그리고 한계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적 상황이나 한계를 뛰어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비근한 예로 흑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헤겔이 흑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²⁴⁾ 이런 경향은 철학에서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역사학, 예술·문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위대한 거부’를 통해 한 시대를 뛰어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선구자는 늘 후학들의 비판이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오점이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시대상황과 연결시켜 전면적인 부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김광협이 텍스트도 예외는 아니다. 이 텍스트가 출판된 1984년이란 시대를 돌아보면 제주방언에 대한 인식도 깊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주방언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나 연구도 되지 않았을 때다. 물론 석주명의 『제주도방언집』(서울신문사출판부, 1947.)이 발간되어 있었고, 설화나 민요 분야에서 현용준, 진성기, 김영돈에 의해 제주방언 표기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했다. 그러나 현평효의 『제주도방언연구 : 논고편』(반도출판사)과 『제주도방언연구 : 자료편』(태학사)이 발간된 것이 1985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 제주방언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았던 때라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제주방언으로 시를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실행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끔 시 중에 제주방언을 사용한 경우는 있었지만 제주방언만으로 시를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를 뛰어넘는 일이었다. 이 텍스트보다 늦게 출간된 김용해의 『혼저 읍서계』²⁵⁾의 경우도 표준어와 제주방언이 혼합되어 있고, 표준어를 제주방언으로 번역해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그에 반해 이 텍스트 전편이 제주방언으로 쓰여 있고, 표기도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협이 텍스트

24) 헤겔, 권기철 역(2008), 『역사철학강의』, 동서문화사.

25) 김용해(1992), 『혼저 읍서계』, 양지원.

는 이 자체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선구자적 의의를 높이 평가한다하더라도 텍스트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덮어둘 수는 없다. 우리가 ‘선인들의 무덤 위에 살고,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를 미루어둘 수는 없다.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 오류를 바로잡는 일은 후학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선학의 업적을 살피는 한편,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진전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문적 자세이기 때문이다.

3-1. 부적절한 제주방언 표현

제주어를 잘 구사했다는 것과 작품으로서 예술적 완성도가 높으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²⁶⁾ 그러나 바른 언어 구사는 문학의 전제조건이다. 언어 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발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발신과 수신은 예술적 완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김광협이 텍스트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잘못된 제주방언 사용과 비제주적 요소를 제주적 요소인 것처럼 기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잘못 쓰인 제주방언을 살펴보자.

앞의 예문 ③에서 “돌통윗 도새긴 / 것 도렌 보채어 대곡”의 “보채어 대곡”은 제주방언이 아니라 표준어다. 오히려 “올러대곡”이 더 적절할 것이다.²⁷⁾ 아니면 “웨울르곡”²⁸⁾이 제주방언에 가깝다. 이는 제주를 떠난 지 오래 돼서, 표준어에 익숙해져서, 제주방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주방언으로 시를 쓰려고 했다면 나름대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옳다. 그 점이 아쉽다.

예문 ④ 「출각출각 ㄱ새소리」에서도 두 단어가 눈에 거슬린다. 하나는 ‘도

26) 김영화(1998), 앞의 책, 44쪽.

27) 위의 책, 43쪽.

28) 제주어연구회(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700쪽. 이후, 이 사전을 ‘사전’으로 약칭하여 괄호 속에 쪽수만 밝히기로 하겠다.

비장시'다. '도비장시'는 '도붓장수'로 '물건을 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사람. 도부꾼. 행상인'을 말한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도비장시'란 말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도비상귀/도비상기'(사전, 250쪽), '도비상구/도부상구'란 말을 썼었다. 이 말은 '도붓장수' 또는 '보부상꾼'이란 말에서 변형된 형태로 보이는데, '제주인이 아닌 육지부 사람'을 지칭한다. 이 말은 구한말부터 쓰였던 말인 것 같다. 구한말까지만 해도 제주에 오는 외지인이란 '도붓장수'나 '보부상꾼'이 주를 이루었으므로 '외지인, 육지 사람'이란 뜻으로 이 단어를 썼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굳어져 일제치하, 4·3, 6·25를 거치면서 외지인이 유입되었는데도 이 말은 70년대까지 쓰였었다. 그러므로 '도비장시'는 '도비상귀/도부상기/도비상구/도부상구'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행의 '지뻘점째'도 '지꺼점째'로 표기해야 맞을 것 같다. '기뻘하다, 좋아하다'란 뜻을 가진 제주방언은 '지뻘지다'가 아니라 '지꺼지다'(사전, 778쪽)이기 때문이다.

「노리 사농 기능 사름」(38쪽)의 “자리 거리레 가는 사름 / 그물 메영 이레 착 저레착”이란 표현도 상황에 맞지 않거나 어색하다. '이레착저레착'은 '마음이나 행동을 하나로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상태'(사전, 714쪽)를 말한다. 따라서 자리뚝을 거리기(그물로 잡아 올리기) 위해 그물을 메고 가는 사람이 '이레착저레착'한다는 건 아무래도 상황에 맞지 않다. 보통 자리뚝을 거리는 그물은 그물만 따로 분리하여 옮겨다니고, 다른 그물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이레착저레착'할 정도로 무겁지 않기 때문이다. '오상오상', '조작조작'과 대응하는 말을 찾았다면 다른 말을 찾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시적허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시적허용은 상황에 맞고 의미 변화가 없는 한에서, 일반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써서 그 의미를 훼손하거나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면 그것은 시적자유라 하기 어렵다. 필자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2년 9월 20일, 젊어서 자리뚝 잡이를 했었던 조천

리 2890번지 안봉훈(73세) 씨를 찾아갔다. 안봉훈 씨는 제주에서 태어나 육지부로 나가 살았던 적이 없고, 젊어서부터 어업에 주로 종사했던 분이다.

필 자 : 자리 거리레 갈 때 그물 멍연 이레착저레착 했덴 허든 맞는 말이파?

안봉훈 : 무사, 술 먹어서 이레착저레착허게?

필자 : 계메마씀. 어떤 책에서 보난 그런 말이 잇길래, 무거웁 그건가 허연 마씀?

안봉훈 : 아, 그까짓 자릿그물이 뭐가 경 무겁덴 이레착저레착헐 거라. 자릿그물 이렌 현 건, 테우에 족바지 메왕나두멍 그물만 메왓닥 튼엇닥 허는 건디, **아멩헐들 그 그물을 경 이레착저레착헐 말이라. 아멩해도 술 먹은 모양인계.**

필자 : 그물만 튼엇닥 메왓닥 해시든 아주 가벼와시경게 마씀.

안봉훈 : 가베운 정도가 아니주. 그자 혼 손에 들렁 다닐 정도주. 그 그물을 메영 이레착저레착해시든 그건 술 먹은 사름이 맞일 거라.

필자 : 아, 예……. 경허곡 하나만 더 물어쿠다. 옛날엔 겨울에도 갈치 낚아나수 파?

안봉훈 : 그건 무신 소리라? 무사 이 선싱은 옛날에 으기 안 살아서? 저실에 무신 갈치가 남광 파도 썬연 바당에 가지기나 허곡?

필자 : 거든 삼태성 빗나는 겨울엔 갈칠 낚질 안 했구나예?

안봉훈 : (다 알면서 짜증난다는 듯) 아, 물을 걸 물어게. **아멩 사는 계 심들었주 마는 저실에 바당에 나강 갈칠 낚을 말이라?**

“아멩헐들 그 그물을 경 이레착저레착헐 말이라. 아멩해도 술 먹은 모양인 계.(아무런들 그 그물을 저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할 턱이 있는가. 아무래도 술 먹은 모양이구먼.)”이라고 단정하는 것으로 봐서 자릿그물을 떼고 “이레착저레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어깨에 맨 그물만 흔들흔들 거리는 것으로 표현하여, ‘자릿그물만 흥글흥글’ 내지 ‘자릿그물만 흥글락흥글락’ 정도가 맞을 것 같다.

‘살아진다가 ‘살아간다’로 잘못 표현된 것도 눈에 띈다. 「큰년이랑 물질가곡」(42쪽)에서 “오몽헝여사만 살아간다”가 그것이다. 시인이 직접 표준어로 바꿔놓은 것을 보면 ‘살 수가 있단다’와 ‘살아갈 수 있단다’다. 그러나 이 뜻을 가진 단어는 ‘살아간다’가 아니라 ‘살아진다’다. 이는 「모인 좁쌀 감저밥」

(48쪽)에도 다시 반복되는데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살아진다’로 표현하고 있다. ‘살아진다’란 말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살아간다’와 ‘살아진다’로 표현했다면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살아간다’와 ‘살아진다’는 분명 다른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이다.

「모인 좁쌀 감저밥」(48쪽)의 ‘언주왕’이란 단어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리젓 베치김치 감저밥 조팍 / 폭폭 언주왕 먹으멍”에서 ‘언주다’는 보통 손으로 ‘홀어져 있는 것을 그러모으다’(사전, 626쪽)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폭폭 떠먹는’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떠먹다’의 뜻을 가진 ‘거려먹다’(사전, 42쪽)를 활용한 ‘거려먹으멍’이 맞을 것이다.

「기시린 도새기에 터럭 돋듯」(52쪽)에서 ‘기시린’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다. ‘기시리다/그슬리다/그시리다/괴시리다’는 표준어 ‘그슬리다’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에 쪄어 거죽만 살짝 타게 하다’(사전, 108쪽)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단어가 돼지와 연관될 때는 돼지를 잡기 위해 돼지털을 태움을 뜻한다. 돼지를 추렴할 때는 숨을 완전히 끊고 나서 돼지털을 그슬리는 게 보통이고 보면, ‘기시린 도새기에 터럭 돋듯’이란 표현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람이 일부러 태우지 않고, 돼지가 잘못해서 불에 그을렸다면 ‘터럭 타분’ 내지니 ‘터럭 탄’이 맞을 것이다. 그 외에도 「저슬 고장 흰 고장」(68쪽)의 ‘비발년야’는 ‘비바리’, 즉 여자를 아주 낮추어 부를 때나 사용하는 단어다. 그런데도 마치 일반적인 호칭어처럼 사용하고 있다. ‘발’에 대한 단어가 ‘발/뺏/왓’ 등으로 표기되어 혼란스럽다. 제주방언에서는 ‘뺏/왓’으로 보통 쓰임을 고려할 때 ‘뺏/왓’으로 통일하여 표기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한다. 초판인 1984년도에는 참고할 자료가 없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재판할 때라도 이에 대한 수정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그 때는 이미 제주방언에 대한 얼마간의 정리가 이루어졌음²⁹⁾을 상기할 때 더욱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없다’의 경

29) 1980년대에 이미 제주방언에 대한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 1985년에 현평효에

우 제주에서는 ‘엇다’로 발음됨을 고려하여 ‘엇저/엇찌/엇어’로, ‘열다’의 경우는 ‘올다’이므로 ‘올아사주’로, ‘땃’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땃’이 아니라 ‘땃’으로, ‘얏다’의 경우는 제주방언에서도 ‘얏다/안지다’이므로 ‘얏이/안지’로, ‘삶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슴다/슌다’가 있는데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슴다’가 쓰이므로 ‘슴곡’으로 바뀐어야 했다. 기본형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활용을 해보면서 제주방언의 기본형을 잡은 후, 이를 활용하였다면 보다 정확한 제주방언을 표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가 이처럼 정확한 제주방언 표기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 전달된 제주방언이 타지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거나, 전혀 어울리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귀에 거슬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관광차 제주에 왔던 관광객들이 엉뚱하고 황당한 제주방언을 배워놓고는 그게 바른 제주방언인 양 사용하고, 그 언어를 가지고 제주를 비웃거나 비하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잘못 전파된 언어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언어의 배반을 심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제주방언을 보급하기 이전에 정확한 제주방언을 알고, 찾고, 전해줘야 하리라 생각한다.

3-2. 제주적 상황에 맞지 않은 진술

시인이 제주도에서 계속 살면서 제주적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확인해봤다면, 금방 바로잡을 수 있는 비제주적 요소들이 눈에 띈다. 특히 육지부에서 경험으로 인해 제주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진술이 보인다. 문학적 장치로, 맛과 멋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주적 상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필요하다. 이 또한 텍스트의 결점과 약점을

의해 『제주도방언연구 : 논고편』(반도출판사)과 『제주도방언연구 : 자료편』(태학사)이 발간되어 훗날 제주도방언연구회 이름으로 발간한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1995.)의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들춰내려는 게 아니라 보다 정확한 제주적 상황을 타지인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서시라고 할 수 있는 예문 ①의 「브름코지 빌레왓다」에서부터 제주적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피도갈곡」이 문제다. 과연 제주에서 피를 갈았을까 하는 점이다. 구황식물로 메밀은 갈았지만 피를 갈았는가는 생각해볼 문제다. 물론, 일부 지역(특히 시인의 고향인 서귀포 지역)에서 피를 갈았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보편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피는 “벼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로, 벼가 재배되기 힘든 산간지나 북부지방의 냉수답 또는 냉수가 들어오는 논·입구나 샘 들레에 재배된다.”³⁰⁾ 이런 피를 과연 제주에서 일반적으로 재배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피는 논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에서 가뭄이 들었을 때 재배하는 구황작물이란 점에서 제주와는 거리가 있다. 물론 극히 일부 지역에서 벼가 재배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제주 상황과는 합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오곡³¹⁾ 중의 하나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한다.

「전기고장 타다그네」(22쪽)에도 문제점이 보인다.

솔뚜껍이 가리싸곡 / 돌지름을 블라그네
흐장두장 지저보게 / **전기떡을 지저보게**
전기고장 박은떡은 / 요영이나 맞이시카
—「전기고장 타다그네」 일부(22쪽, 진한 표시 : 필자)

30)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1788&mobile&categoryId=1611>

31) 제주의 오곡(五穀)은, «삼을나신화(삼성신화)»에 벽랑국 공주들이 가지고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이 오곡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주에서 과거로부터 주로 재배해온 보리·조·콩·팥·메밀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피’보다는 제주에서 구황작물로 재배했던 ‘메밀’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솔뚜껑을 뒤집어서 / 비계기름 발라서는 / 한장두장 부쳐보자 / **진달래떡을
붙여보자** / **진달래꽃 박은떡이** / **이렇게도 맛있을까** — 「진달래꽃 따다가」
일부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상황은 지지미를 ‘지지는’(붙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주에서 진달래꽃을 따다가 과연 지짐을 지졌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육지부의 화전(花煎)을 붙이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인상이 짙다. 물론, 일부에서는 지지미에 색깔이 예쁜 진달래 꽃잎을 따다 놓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주에서는 지지미에 파나 부추, 배추나 고추, 호박을 잘게 썰어놓았었다. 과거적 성향이 강한 시편들이고 보면 화전은 격에 맞지 않은 것 같다.

「가다그네 박아져그네 일어서질 말게 흡서」(32쪽)에도 제주적 상황과는 맞지 않은 단어가 있으니, “탕쉬”가 그것이다. “탕쉬”에 대해서 시인은 “제사에 쓰는 국”이라고 표준어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육지부의 ‘탕/탕국’을 제주적인 것으로 잘못 안 게 아닌가 한다. 제주에서는 ‘탕/탕국’을 올리지 않는다.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올리는 밥을 ‘메/멧밥’이라하고 국을 ‘깡/깡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탕/탕국’을 올리지 않는다. 육지부에서는 어탕(魚湯), 소탕(素湯), 육탕(肉湯) 등을 올리지만 제주에서는 국 한 가지만 올리기 때문이다. 만약, 시인의 고향인 서귀포 지역에서 탕을 올렸다면 이는 육지부의 풍습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고, 국을 탕이라 불렀다 해도 이는 육지부에서 들어온 말일 가능성이 높다. 『제주어사전』에도 ‘메/멧밥’, ‘깡/깡국’은 수록되어 있지만³²⁾ ‘탕’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탕쉬’는 ‘고사리, 콩나물 따위를 삶아 참깨 등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제사(祭祀)에 쓰는 나물’ (사전, 843쪽)을 말한다. 따라서 이 시에서 쓰인 ‘탕쉬’와는 전혀 다른 사물을 지칭한다. 또한 이 시에서 ‘처시’를 ‘나쁜 귀신’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32) ‘메’는 358쪽, ‘멧밥’은 365쪽에, ‘깡/깡국’은 60쪽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문제가 있는 해석처럼 보인다. ‘처시/체시’는 ‘저승사자’를 말한다.

「벨빛은 베롱베롱」(114쪽)에서는 겨울철에 갈치낚시 하러가자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다. 앞에 제시한 필자의 현장조사 내용과 『제주도지』³³⁾를 참고할 때, “삼태성”이 곱닥한(고운) 계절은 겨울철이고, 겨울에는 갈치낚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음수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 정작 가독성을 떨어트리지 않았나 한다. 민요적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2음보를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 하지만 띄어쓰기를 무시하여 음수만을 맞추다보니 오히려 제주방언의 맛을 떨어트렸고, 제주방언을 더욱 생경하게 만들어 버린 것 같다. 물론, 시인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시인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을 구성할 수는 있다. 이상(李箱)의 경우는 띄어쓰기를 무시한 채 쓴 소설과 시가 있다. 그러나 독자들이 공유하는 표준어가 아닌 제주방언이란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띄어쓰기만이라도 제대로 해줌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숨기기 위해서, 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보다 텍스트에 집중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면 ‘상호간의 약속’인 표기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주방언을 활용하여 창작하려는 사람은 언어 표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문학적 형상화가 잘 된 작품이라 할지라도 표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작품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 잘못된 표기 하나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소통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을 쓰는 일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며, 공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작가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단어나 표현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을 찾는 노력뿐만 아니라 전문서적을 찾기도 하고, 다리품을 팔기도 하고,

33) 제주도(1993), 『제주도지 3』, 제주도, 971쪽.

“갈치잡이는 음력 3월에서부터 5월까지, 또 7월에서부터 10월까지다. 봄에 낚는 갈치를 ‘봄갈치’, 가을에 낚는 갈치를 ‘꺾실갈치’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정확한 단어나 표현을 찾아낸 후 표현해야 한다. 플로베르가 일물일어설(一物一語說)을 주장한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의 사물에는 오직 하나의 말밖에 없다.’란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 사물에 딱 맞는 정확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리라. 더군다나 독자에게 낯익고 친숙한 언어가 아닌 지역어로 표기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독자들이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을 잘못된 표현이라고 인정하고 수정·수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독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언어가 유통됨으로써 언어를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적 정서에 어울리지 않거나 지역적 상황에 맞지 않은 표현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보편화·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수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 아니라, 지역민을 기만하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요소들이 지역민이 지역문학을 홀대하는 이유일 수도 있음을 새겨야 한다. 남들이, 독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하기보다 더 철저하게 찾아보고, 찾아내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지역어를 활용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눈길을 처음 걷는 사람은 발자국을 함부로 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란 금언을 가슴에 새겨야 하리라 본다.

4. 의의 및 영향관계

모든 예술은 ‘역사적 현실’ 속에 존재한다. 바르부가 지적하다시피 모든 문학과 예술, 심지어는 인간의 심리까지도 사회·역사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³⁴⁾ 특히 역사적 현실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과 정서·감정·심리를

언어란 매체로 형상화하는 문학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회화나 음악, 무용 등 다른 예술에 비해 언어를 매개로 하는 문학의 경우는 사회·역사적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에서의 시·공간성은 그 어떤 예술에 비해 중요성을 지닌다.³⁵⁾ 지역문학에서 ‘지역의 눈’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때문이다. 아예 “지역문학의 개념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문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⁶⁾고 지역문학을 정의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은 지역어의 활용에서 찾을 수도 있다.

제주문학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처음 시도한 김영화는 먼저 문학작품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에 주목한다. 시인이나 소설가는 숙명적으로 ‘언어의 마술사’가 되지 않으면 예술적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시인은 언어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하고, 소설가는 언어를 발굴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셰익스피어나 괴테의 위대성은 작품 세계의 폭과 깊이에도 있지만 그들의 구사한 언어의 폭과 깊이에도 관계가 있다. 그러기에 제주문학이 제주문학다운 특성을 가지고, 그것이 뛰어난 문학이 되려면 제주어를 잘 활용해야 한다³⁷⁾고 했다. 그러나 제주작가라고 해도 작품을 쓸 때는 대부분 표준어로 쓰거나, 표준어와 제주방언을 혼용한다. 제주방언을 모르는 독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제주방언 표기나 표현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주방언만 가지고 쓴 작품은 드물고, 표준어와 제주어가 혼합된 경우가 적지 않다.³⁸⁾ 그런데 김광협은 『돌할오방 어디 감수광』에서 시 전편을 과감하게 제주방언으로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선구자적 면모가 있는 것이다.

34) 제베데이 바르부, 임철규 역(1983), 『역사심리학』, 창작과비평사.

35) 크로노토프에 대한 언급으로, 이에 대해서는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공역(1988), 『장편 소설과 민중 언어』, 창작과 비평사, 259~468쪽. 참조.

36) 김병택(2005), 『제주 현대문학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 제주, 24쪽.

37) 김영화(1998), 앞의 책, 39쪽.

38) 김병택(2005), 앞의 책, 143쪽.

또한 김광협은 이 텍스트에서 민요적 요소를 차용하여 제주민의 삶을 진솔하고 적절하게 형상화했고, 텍스트의 시간을 1960년대 이전으로 설정하여 제주 풍속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제주적 요소’를 발견하려 했다. 아울러 구술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화자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이나 제주민의 모습을 생동감 넘치게 그려냈다. 이런 점은 후행텍스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김용해의 『혼저 읍서계』는 표준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필요에 의해 제주방언을 간혹 활용하고 있어서, 양전형의 『허천바레당 푸더진다』는 현대적 상황을 그리고 있어서, 이성준의 『설문대할마님, 어땜 읍데가?』는 제주 태초의 시·공간을 무대로 설정하고 있어서 관계조명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김종두, 고정국, 고훈식의 텍스트는 김광협 텍스트와의 상호관련성을 살필 수 있다.

오라리 메마꽃덜 당구 첨저
 촌꽃덜 시내에 나완
 흥탁내기 당구 흥근 이겨보젠
 몸땡이 데와져가명 눈 뿔싸가명 첨저

— 양전형, 「오라리 메마꽃 15—쉴다섯」 일부³⁹⁾

오라리 메꽃들 당구 치네 / 촌꽃들 시내에 나와 / 흥탁내기 당구 어떻게든 이겨보려 / 몸땡이 비비꼬아가며 눈 찌그러가며 치네 —양전형, 「오라리 메꽃 15—쉴다섯」 일부

양전형의 시편에는 이처럼 ‘당구’, ‘흥탁내기’ 등 외래적이거나 현대적인 내용이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있다. 현대화된 제주, 현대적 제주인의 삶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양전형의 시들은 현대적 감각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9) 양전형(2008), 앞의 책, 66쪽. 표준어 해석은 시인이 직접 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제주방언 시집들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적이고 외래적인 요소들은 ‘제주적인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은 김광협이 텍스트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기류임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을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정확해진다.

초신 신단 / 고무신 신으난 / 웨우누달 / 몰라그네
아까왕 / 잠잘 때두 / 심었다 / 품었다허단
추물락 / 그 신 여배영 / 꿈에 깨낭 / 울단 아이.
— 「웨우누달 몰라그네 : 몸보다 귀한 신발」 전문⁴⁰⁾

짚신 신다 고무신 신으니 왼쪽 오른쪽을 분간 못해
아까워서 잠잘 때도 쥐었다 품었다하다가
아, 깜빡 신 잃어버리고 꿈 깨 울던 아이야.
— 「왼쪽 오른쪽을 분간 못해 : 몸보다 귀한 신발」 전문

사름 사는 집을 / 지들 컷으로 뵈어 싱고라
불빛자락 들영 땡기명 / 이 집 저 집
온 믱을 불질러 불어신예.//
“살려줍써” / “살려줍서”
지은 죄 어시 죄인 되영 / 두 손 삭삭 빌어도
총 맞앙 죽곡 / 대창에 쩡영 죽곡.//
경 허난 / 흥 동네 흥 날 흥 시에
물걸어 놀 식겻날은 / 열도 되고 스물도 되느네.

— 「제주여인 9」 일부⁴¹⁾

40) 고정국(2004), 앞의 책, 137쪽. 표준어 해석은 시인이 직접 한 것이다.

41) 김종두, 앞의 책, 26쪽. 표준어 해석은 필자가 한 것이다.

사람 사는 집을 / 빨감으로 봤는지 / 불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 이 집
저 집 / 온 마을을 불 질러 버렸지.// “살려주세요” / “살려주세요” / 지은
죄 없이 죄인 되어 / 두 손 삭삭 빌어도 / 총 맞아 죽고 / 대창에 찢려
죽고// 그러니 / 한 동네 한날 한시에 / 물 떠놓을 제삿날은 / 열도 되고
스물도 되지.—「제주여인 9」 일부

흰 밥을 먹으면 설사나곡 / 흰 밥을 대껴불민 죄 받으란
계문 흰 밥으로 / 신다리 허영 먹게
흰 보리밥이 / 쉬컬랑 더 쉬렌
물이영 누룩 노양 / 흐르만 그냥 내불민
계끔 부각허게 부끈다 / 당원이나 사카린을
그래 노양 폭 숲으민 / 유산균 음료처럼
덜코롬헌 신다리가 되는데 / 나이 신이나 넘은 사람은
신다리라도 되젠 허민 / 정신 바짝 출렁 살아사 현다.
—「신다리」 전문⁴²⁾

흰 밥을 먹으면 설사하고 / 흰 밥을 버리면 죄 받으니까 / 그렇다면 흰
밥으로 / 식혜를 만들어 먹자/ 흰 보리밥이 / 쉬는 데까지 더 쉬라고 /
물과 누룩 넣고 / 하루만 그대로 놔두면 / 거품 풍성하게 부끈다 / 당원이
나 사카린을 / 거기에 넣어서 폭 끓이면 / 유산균 음료처럼 / 달착지근한
식혜가 되는데 / 나이 신 살이 넘은 사람은 / 식혜라도 되려면 / 정신 똑바
로 차려서 살아야 한다.—「신다리 : 제주도 식혜」 전문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김광협이 텍스트는 1960년대 이전 상황을 그리고 있다. 언어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특성은 후행텍스트에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의 압력⁴³⁾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위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2) 고희식, 앞의 책, 76쪽. 표준어 해석은 시인이 직접 한 것이다.

43) 선행텍스트에 대한 부담(억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먼저 명작의 억압으로, 널리 알려진 텍스트나 자신이 유명작이 후행텍스트를 생산할 때 제공자를 억압하는 경우다. 르네 웰렉·오스틴 워렌이경수 역(1987),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

1960년대 말부터 제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새마을운동을 시작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아울러 대중매체의 보급, 학교 교육의 일반화 등으로 다양한 외래적 요소가 제주적 요소와 섞인다. 오히려 비제주적 요소들에 의해 제주적 요소들이 사라지게 된다.⁴⁴⁾ 따라서 1970년대는 실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언어·의식 등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기에 제주의 풍습, 제주민의 삶, 제주민의 의식을 그려내기에는 적절치 않은 시기로 볼 수 있다. 김광협은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1960년대 이전 상황을 의도적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후행 제주방언 시집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사는 게 뭣산디』, 『지만 올단 장쿨래기』, 『으보록소보록』 등이 『돌할오방 어디 감수광』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도 시대 설정이나 서술기법, 내용, 구성방식 등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이 텍스트의 영향을 입었음이 발견된다.

이 시집들은 김광협이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시간적 배경을 1960년대 이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물론, 시인들 출생연대가 1940·50년대여서 그들의 기억이 대체로 1960년대 이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는

사.]이 지적하는 후행 작가를 억압하는 기제—기존의 제도·장르·체계 등—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원-텍스트의 억압이다. 크리스테바(서민원 역(2005), 『세미오티케』, 동문선.]가 말한 현상텍스트가 생성텍스트를 억압하는 경우를 말한다.

44) 제주도(1993), 『제주도지 2』, 제주도, 654-688, 1228-1235쪽.

제주도 사회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654-688쪽에 기술되어 있고, 의식의 변화는 1228-1235쪽에 기술되어 있다. 이를 요약 정리한다면, 1960년대 중반 이후 제주사회 또한 농업 중심의 사회로부터 공업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사회 각 영역에서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외지인의 대거 유입은 제주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65~1981년 사이에 범죄발생률 또한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성범죄의 경우는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85년 실시한 한 조사는 개발에 따른 사회·문화적 문제점으로 미풍양속의 파괴와 각종 범죄 증가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제주인들 사이에서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한탕주의적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고정국의 지적처럼 “제주사투리의 용량(容量)으로는 암만해도 이 시대의 정신적 물질적 대상을 다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⁴⁵⁾에 현대적 관점보다는 과거적 관점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고의 밑바탕에는 김광협이 텍스트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선행텍스트의 영향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김광협이 추구했던 구술성 또한 다른 제주방언 시집에 일관되게 드러나는 속성으로 앞의 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지역어는 문자성보다는 구술성이 우선시 된다. 지역어란 표준어와는 달리 특정 지역에서 구술되고 있고, 그 언어를 문학에 활용한다는 것은 그 언어의 속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소설에서 지역어는 대화체 형태로 존재하고 서술이나 묘사는 표준어에 의존하고 있다. 박상룡처럼 소설 전체를 지역어로 서술하는 경우도 있으나⁴⁶⁾ 그러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지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지역 독자에게 제한될 수 있고, 그 지역 독자라 해도 이해의 폭이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의 경우는 다르다. 김동윤의 지적⁴⁷⁾처럼 시의 경우는 다른 장르와는 달리 그 의미나 언어를 되짚으며 읽는다. 이런 점에서 시에서는 과감하게 지역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상·전라·충청도어가 대중들에게 눈과 귀에 익은 것은 작가들이 그만큼 작품 창작에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 등을 통해 빈번하게 구사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 파악에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한 어휘나 문맥상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는 어휘는 과감하게 지역어로 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 바로 김광협이 텍스트이고, 그 영향은 후행텍스트

45) 고정국(2008), 「시공을 뛰어넘는 사투리의 힘—양전형 제주사투리시집 『허천바레당 푸더진다』를 중심으로」, 양전형, 『허천바레당 푸더진다』, 다충 : 제주, 130쪽.

46) 박상룡은 남도 연작 전편을 전라도어로 서술하고 있다. 「南道·1」, 「南道·2—늙은 것은 죽었네라우」, 「심청이—南道」其三이 그것이다. 박상룡(1986), 『열명길』, 문학과 지성사, 151~209쪽.; 박상룡(1997), 『아겔다마』, 문학과지성사, 448~486쪽. 참조.

47) 김동윤, 앞의 책, 124~125쪽.

트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구술성 위주의 서술은 문자에 대한 거부현상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예컨대 판소리나 곳에서 구송되는 언어를 문자성에 초점을 맞춰서 바꿔버린다면 생경하면서도 현장감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판소리나 무가가 아니라 다른 장르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장르란 문학을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작가를 강제하는 동시에 거꾸로 작가에 의해 강제되는 제도적인 명령”⁴⁸⁾으로 작용하여 장르 문법을 형성하기도 하고, 독자가 기대하는 기대지평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어는 구술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간파한 것이 바로 김광협이 텍스트이고 보면, 김광협 이후의 많은 시편들은 알게 모르게 김광협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고정국의 『지만 올단 장쿨래기』는 서사성을 도입하여 한 소년의 성장담 (initiation story)을 시조로 그려내고 있다. 고정국의 텍스트는 언어의 정확성과 조탁, 짜임새, 폭넓은 상황 전개면에서 김광협의 텍스트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시대 설정이나 서술기법, 구술성, 제주적 상황 묘사 등에서 김광협의 텍스트를 연상케 한다.

앞에 예로 든 「웨우누달 몰라그네 : 몸보다 귀한 신발」은 유년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민의 가난과 가난한 소망, 잊을 수 없는 유년시절의 한 자락을 형상화하고 있다. 고무신 한 켤레를 통해 가난 속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작고도 소중한 소망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고무신을 갖고 싶은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꿈속에서 그 신발을 잃고 허둥대다 꿈을 깬 후에 울음을 터트리겠는가. 가난 속에서도 소중한 꿈을 간직하려는, 알뜰살뜰한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소년의 모습을 눈앞에 문학적으로 형상화해놓았다. 시인의 분신이자 행위주체자인 화자의 경험담을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자와 청자의 정확한 설정, 제주의 가난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48) 르네 웰렉·오스틴 워렌, 이경수 역(1989),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335쪽.

등에서도 김광협이 이야기 방식을 새삼 떠올린다. 시적 리듬 또한 닮아 있다. 김광협이 민요 리듬인 2음보와 3음보, 4음보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고정국은 시조의 리듬인 4음보를 바탕으로 시편들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유사성은 두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제주 4·3을 기점으로 하여 현대를 관통하는 제주민의 가난·고난 등 지난한 삶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김광협이 텍스트는 후행텍스트에 영향을 주고 있다.

김중두의 시에는, 아무 죄가 없는 민간인이 한낱한시에 열 내지는 스무 명이 희생된 마을이 수두룩함을 말함으로써 현대사의 비극인 4·3의 아픔을 증언하고 있다. 4·3을 직접 겪은 화자가 4·3에 대해 모르는 청자에게 증언하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제주방언으로 제주민의 삶과 수난, 제주민의 의식, 제주의 풍속 등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선 김광협이 텍스트와 맥이 닿아있다. 고훈식의 시는 먹을 게 귀했던 시절에 쉼다리를 만들어 먹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쉼다리라도 되젠 허민 / 정신 바짝 출렁 살아사 현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산균”이란 현대적 단어도 보이지만 나머지 표현들은 모두 60년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쉼다리를 통해 가난했던 옛날을 떠올리고, 쉼다리와 같은 존재가 되기도 결코 쉽지 않음을 현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속에서도 “살암시믄 살아진다”고 힘주어 말하는 제주민의 의식은 김광협이 텍스트에 나타나는 의식 그대로다. 지난한 삶을 인고로 견디어온 이의 삶의 철학을 담고 있다. 화자의 의도가 직접 노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발화주체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제주민이란 점에서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에 출간된 제주방언 시집들에는 김광협이 호흡과 어투, 말하는 방식 등이 남아있다. 특히, ‘제주적인 것’에 대한 인식은 김광협이 그 것과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광협이 텍스트는 2000년

대 제주방언 시집의 방향계(方向計)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5. 나가며

1980년대에 김광협에 의해 뿌리내린 ‘제주어 문학’⁴⁹⁾은 김종두, 고정국, 고훈식 등에 의해 유지·발전되다가 2010년대에 양전형에 의해 또 한 번 용트림을 한다. 과거가 아닌 현재, 제주민의 삶과 정서가, 곁은 제주방언으로, 『허천바레당 푸더진다』로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어 문학’이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이성준은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주도 창조신화인 설문대할망설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해 『설문대할마님, 어명 읍데가?』를 제주방언으로 발간하기도 한다. 이로써 1960년대 이전에 간혀있던 제주, 제주민의 삶, 의식이 시간의 장벽을 허물게 된다. 이외에도 문충성, 김수열, 김경훈 등이 제주방언을 활용한 시편들을 계속적으로 창작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이 김광협의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이라는 점에서, 이 텍스트에 대한 조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제주방언 표기 원칙은 제주방언 연구자 및 제주의 설화와 민요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다듬어져 왔다. 그러다 1994년에는 현평효·강영봉을 비롯한 제주어연구회에 의해 『제주어사전』이, 송상조에 의해 『제주말 큰사전』(한국문화사, 2007.)이 집대성되어 제주방언과 제주문학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로써 제주도민과 제주문인들은 찾아보고, 확인하고, 참고하고, 기델 ‘고향집’을 갖게 된다. 2000년대 들어 제주방언을 활용한

49) ‘제주어 문학’이란 제주방언으로 쓰인 제주문학을 지칭하는데, 필자가 붙여본 것이다. ‘제주문학’이란 제주의 문학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표기 언어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주방언으로 표기된 제주문학’을 지칭하는 용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붙인 명칭이다.

창작이 급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 써오긴 했지만 맞는 말인지, 표기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민고 기뻐 곳’을 찾았기 때문이다.

제주방언은 특정시대를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렇다고 고어도 아니다. 중세국어적 모습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제주방언은 오늘도 제주사람들에 의해 일상용어로 쓰이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제주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이어주고 지속시키는 ‘약동하는 유기체’다. 물론 제주란 좁은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고 멸종위기에 몰린 언어이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동안 역사적 시련과 환란을 견뎌내고 이겨낸 제주민의 삶과 함께 온몸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꿈꾸는 동물’이기도 하다. 이 동물은 관심과 사랑으로 자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주방언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주 사람이라면, 제주에 살면서 글을 쓰는 제주문인이라면 제주방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제주방언을 적절하게 나열하여 제주민들의 집단의식을 자극하면 문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문학은 언어를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을 때 문학일 수 있는 것이지,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지 않은 제주방언의 나열은 제주방언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고 소음공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고운 제주방언을 찾아내는 한편 정확하고 통일된 표기로,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때 제주방언과 제주문학의 위상은 보다 공고해질 것이다. 그러기에 제주방언 시집을 처음으로 묶어낸 김광협과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은 그 의미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기초텍스트

- 고정국(2004), 『지만 올던 장쿨레비』, 각 : 제주.
고훈식(2006), 『으보록스보록』, 제주콤 : 제주.
_____(2006), 『어글락 다글락』, 제주콤 : 제주.
김경훈(1993), 『운동부족』, 오름 : 제주.
_____(2008), 『눈물 밥 한숟가락』, 심지.
김광협(1984),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백록.
김수열(1997), 『어디에 선들 어떠랴』, 파피루스 : 제주.
_____(2000), 『신호등 쓰러진 길 위에서』, 실천문학사.
_____(2006), 『바람의 목례』, 애지 : 대전.
_____(2009), 『생각을 흠치다』, 삶이보이는창.
김용해(1992), 『흔저 읍서계』, 양지원.
김종두(2000), 『사는 게 뒷산디』, 영주문학사 : 제주.
문충성(1980), 『자청비』, 문장.
_____(1981), 『섬에서 부른 마지막 노래』, 문학과 지성사.
_____(1993), 『설문대할망』, 문학과 지성사.
_____(2001), 『허공』, 문학과 지성사.
_____(2002), 『망각 속에 잠자는 돌』, 제주문화 : 제주.
_____(2003), 『집과 길』, 각 : 제주.
양전형(2008), 『허천 바레당 푸더진다』, 다층 : 제주.
이성준(2006), 『못난 아버지의 노래』, 책나무.
_____(2010), 『나를 위한 연가』, 책나무.
_____(2012), 『설문대할마님, 어떻 옵테가?』, 각 : 제주.

2. 논문 및 논저

- 강영봉·김동윤·김순자(2010), 『문학 속의 제주 방언』, 글누림.
공임순(2000),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책세상.

- 김동윤(2008),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 제주.
- 김병택(2005), 『제주 현대문학사』, 제주대학교출판부 : 제주.
- 김영돈(2002), 『제주도 민요연구·하』, 민속원.
- 김영화(2000),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 제주.
- 박상룡(1986), 『열명길』, 문학과 지성사.
- _____ (1997), 『아겔다마』, 문학과지성사.
-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 송상일(1991), 「제주문학의 향토성과 보편성-시의 방언 사용을 중심으로」,
『제주문학』 20집, 제주문인협회 : 제주, 146~151쪽.
- 송상조(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 이부영(1998), 『정신분석학』, 일조각.
- 이성준(2011), 「이청준 소설의 시·공간적 특징과 알레고리」, 『한국문학이론
과 비평』 5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65~290쪽.
- 제주도(1993), 『제주도지 2·3』, 제주도.
- 제주어연구회(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 : 논고편』, 반도출판사.
- _____ (1985), 『제주도방언연구 : 자료편』, 태학사.
- 현평효·강영봉(2011), 『제주어 조사 어미 사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제주.
- 르네 웰렉·오스틴 위렌, 이경수 역(1989),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 류 샤오핑,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역(2001), 『역사에서 허구로』, 길.
-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공역(1988), 『장편 소설과 민중 언어』, 창작과 비
평사,
- 월터 J. 옹, 이영걸 역(1985), 『언어의 현존』, 탐구당.
- _____, 이기우·임명진 역(1995),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 제베데이 바르부, 임철규 역(1983), 『역사심리학』, 창작과비평사.
-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2005), 『세미오티케』, 동문선.
- 헤겔, 권기철 역(2008), 『역사철학강의』, 동서문화사.
- 헤이든 화이트, 천형균 역(2011), 『메타역사 I·II』, 지식올만드는지식.

〈Abstract〉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Jeju dialect literature
- Focusing of Kim Kwang-Hyup’s ‘Greetings to Dolhaleubang’-**

Yi, Sung-jun(Jeju National University)

Literary language of Jeju, using examples from a small but full-fledged use the Kim Kwang-Hyeop’s 'Greetings to Dolhaleubang'. However, by highlighting only the 'first', I investigated the piecemeal literary approach but this text seems to have been neglected. This paper,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text, while away from the tendency of these existing, and will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text planning. This text is published in the 1980s and foremost to forestall despite not assume that it was time to the 1960s, was equipped with a circle of Jeju. Also 1960s of jeju people's lives, juju’s customs and shaping people's consciousness.

Multiple narrative techniques adopted this time to oversee the various customs and life of Jeju that are characteristic. However, 'first' Despite pioneering in the 1960s, use inappropriate language of Jeju and Jeju situation does not fit into a statement Jeju situation did not express correctly points can be pointed out to the limit. This point can be connected and the life of the poet, who lived in Seoul for a long time to leave hometown, Jeju. Nevertheless, this text so far as the Preceding text Jeju language poetry on having a lot of impact, Trailing text of Jeju as a creative language most of the 1960s, described as the center of that, the current look, but in the past that shape the look of Jeju, Jeju's indigenous emotions pursued by the consciousness of my residents drawing can see the text that affects the trailing text.

Key words : Kim Yong-Hyup, 'Greetings to Dolhaleubang', Jeju literature, Jeju dialect poetry, Jeju dialect notation, The original form of Jeju, Life and customs of Jeju,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text

배 달 말(51)

이 름 : 이성준

근 무 처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 소 : [690-810] 제주시 도령로 26(노형동 904번지)

전 화 : 064-743-3700, 010-8592-4624

전자우편 : narasmal@naver.com

논문 접수 : 2012년 11월 14일

심사 완료 : 2012년 11월 30일

게재 확정 : 2012년 12월 5일